

SKT, 미래 통신보안 생태계 기준 세운다

양자암호 국제표준 예비 승인

ITU-T 회의서 IDQ와 공동 제안
보안 키결합, 프레임워크 기술 2개
의견 조율후 최종 표준으로 채택



SK텔레콤은 8월 24일부터 9월 3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ITU-T 회의에서 자회사 IDQ와 함께 주도한 양자암호 통신 표준 2건이 국제 표준으로 예비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ITU-T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을 뜻하며,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산하 기관으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정한다.

이번에 예비 승인된 표준은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표준으로 채택된다.

이번 예비 승인된 표준은 양자암호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키 결합 및 제공 방식(X.1714)과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X.1710) 등 2가지다. 두 기술 모두 통신망

에 양자암호를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표준이다.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키 결합 및 제공 방식’은 양자암호 키와 다른 방식의 암호화 키 생성 방식을 결합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암호 키 방식의 보안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의 도입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는 양자암호 키 분배 기술을 통신네트워크에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 사항을 규격화한 것이다. 완벽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보안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규격을 통해 양자암호 키 분배 네

트워크 시스템들의 보다 높은 보안성과 안전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ITU-T 내 통신 보안 전문 연구조직 SG17에서 표준화 실무반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2건의 예비 승인 외에도 ‘양자 난수 발생기 보안구조’ 표준을 주도해 지난해 11월 최종 등록했으며, 올해 3월에는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기술 보고서 발간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SK텔레콤은 차기 ITU-T 표준 연구 회기 동안 보안 전문 연구조직 SG17에 양자암호를 포함한 미래 보안 기술을 표준화하는 실무반 설립을 주도했다.

SK텔레콤 김운 CTO는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표준 제정에서부터 네트워크·단말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서킷을 주행 중인 타이칸.

/포르쉐코리아

괴물같은 질주에 넘치는 힘... ‘밸런스 굿’

자동차 시승기

포르쉐 ‘타이칸’

월드 로드쇼 2020서 국내 첫 데뷔
최고출력 530마력, 가속력 뛰어나
후륜에 2단 변속기 주행력 높여

‘포르쉐 월드 로드쇼’는 포르쉐의 주요 모델을 한 자리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유일한 행사다. 모든 차량을 독일 현지에서 공수해 차량내구성까지 증명할 수 있다. 올해에도 20여종 차량이 용인 스피드웨이 서킷을 쉴 새 없이 달렸다.

올해에는 더욱 특별했다. ‘타이칸’이 국내에 데뷔하는 첫 행사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911이 주인공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지만, 올해에는 타이칸으로 관심이 더 쏠리는 분위기였다. 디젤 모델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도 의미가 컸다.

타이칸은 포르쉐가 만든 첫 완전 전기차다. 4도어 세단으로 파나메라와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최고출력이 530마력에 달하는 ‘괴물’이다. 단거리에서는 911을 능가하는 가속력을 보여줬다.

안정적인 차체도 인상적이었다. 공차중량이 2t(톤)을 훌쩍 넘지만, 무게 중심이 하부에 집중돼 무게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빗물이 가득 찬 헤어핀 구간에서도 좀처럼 밀려나지 않았다. 파나메라를 한참 뛰어넘는 힘이였다.

후륜에 2단 변속기도 주행력을 높이는 데 한 몫 한다. 출발할 때와 가속할 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고속에서 약해지는 전기차 단점을 해소

하는데 성공했다.

내부 공간도 충분했다. 파나메라와 다를 바 없는 실용성. 다른 전기차들과 달리 낮은 시트포지션도 인상적이었다.

그렇다고 911이 뒤쳐진다는 말은 아니다. 거센 비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서킷에서도 최고출력 392마력을完전히 뿜어내며 서킷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안정적인 차체 무게 밸런스 덕분에 미끌림도 없었다. 깊은 헤어핀 구간에서도 PSM(포르쉐 스태빌리티 매니지먼트) 작동 없이 달릴 정도였다.

718도 만만치 않았다. 최고 출력이 300마력으로 다소 낮긴 하지만, 911 대비 100kg 가량 적은 무게 덕분에 가볍게 달려나갔다. 클래식한 실내 디자인과 배기음은 오히려 달리는 즐거움을 강조했다. 특히 슬라럼에서는 빠른 속도로 차체를 뒤흔들어도 금세 안정을 찾아준 덕분에 원하는 만큼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렇다보니 4도어 모델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게 사실이다. 파나메라는 뒤에 돌덩이를 메단 듯 출렁거렸고, 카이엔과 마칸은 제대로 속도를 내기도 어려웠다. 폭우가 내리는 환경에서 서킷을 100km/h 이상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긴 했지만, 911이나 타이칸에 비할 바는 못했다.

단, 카이엔 E 하이브리드는 4도어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을 기술력을 확인해줬다. V6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해 최고출력 462마력을 내는데, 부드럽게 출발해 강력하게 치고나가는 주행 감각이 인상적이었다. 무게감 덕분에 조향력도 뛰어나다. /김재용 기자 juk@

‘갤럭시폴드2 톰브라운’ 당첨돼야 살 수 있다

삼성전자, 온라인 추첨으로 판매
내일 18시까지 응모... 396만원

‘갤럭시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이 추첨을 통해 주인을 찾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한정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7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응모를 받으며, 9일 오전 추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은 오는 25일부터 순차 진행된다.

이 제품은 ‘갤럭시 Z 폴드2’에 톰브라운의 현대적이고 절제된 디자인을 가미한 한정판이다. 톰브라운 그레이 색상에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을 실재 원단과 같은 질감으로 후면 글래스에 구현했다. 외관 디자인은 잠금화면에도 시그니처 패턴과 배경화면에도 적용해 사용자 경험(UX)으로 이어지게 했다.

요일별로 바뀌는 톰브라운의 아트 스케치 잠금화면과 톰브라운의 세계관을 디지털화 한 전용 포토필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패키지는 ‘갤럭시 Z 폴드2’뿐 아니라 톰브라운 디자인을 가미한 ‘갤럭시



갤럭시폴드2 톰브라운 패키지.

/삼성전자

워치3’ 41mm 모델,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포함한다. 가격은 396만원이다.

‘갤럭시 워치3’는 톰브라운 그레이 색상의 메탈 프레임에 시그니처 패턴을 적용한 가죽 스트랩을 결합했다. 톰브라운 전용 워치페이스 5종으로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더욱 고급스러운 마감과 함께 톰브라운 디자인의 가죽 케이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폴더블폰 가죽 케이스 2종과 ‘갤럭시 워치3’ 스트랩 2종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제공한다. 충전기와

케이블, 더스트 백 등에도 톰브라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패션 디자이너 톰브라운은 “더욱 진화한 톰브라운과 삼성의 파트너십이 이번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에 완벽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무선사업부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는 “패션 하우스와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Z 폴드2’의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LG의 가로본능 ‘LG윙’ 먼저 체험하세요”

LG전자가 LG윙을 써볼 고객을 찾는다.

LG전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LG윙’ 체험단 ‘스위블 홀릭’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LG윙은 LG스마트폰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 이

름이다. 메인 화면과 보조 화면을 교차한 모양이 날개를 연상시키는 데에 착안해 최종 확정했다.

스위블 홀릭은 총 300명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오는 2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G 윙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25일부터 4주간 활동을 개인 SNS에

올리고 공유하면 된다.

지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익스플로러 ▲크리에이터 ▲플레이어 등 3개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 가운데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LG 그램 등 푸짐한 상품을 증정하고, 향후 LG모바일 패널로 활동하며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LGU+, CSI 등 인기 미드 VOD로 즐긴다

LG윙플러스는 CSI, NCIS 등 미국 CBS 인기 드라마 VOD를 국내 단독으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CBS는 다수 인기 드라마를 방영해 국내에서 ‘미드 열풍’을 일으킨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다.

LG윙플러스는 ‘U+영화월정액(월 1만5400원, 부가세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800여편의 CBS 인기 드라마를 제공한다. U+영화월정액은 4만여 편의 인기 영화와 해외드라마, 애니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추가 구매 없이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월정액 부가서비스로, 매주 최신 영화 10편이 업데이트된다.

U+영화월정액 고객 대상으로 디즈니와 NBC유니버설 등 해외 메이저 스튜디오의 콘텐츠를 제공해왔는데, 콘텐츠 라인업 강화를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국내 ‘미드 열풍’을 일으킨 CBS 인기작을 제공키로 했다는



모델들이 미국 CBS 인기 드라마 VOD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윙플러스

설명이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CBS 주요 콘텐츠로는 ▲과학수사 신드롬을 일으킨 명작 범죄·수사물 ‘CSI’ ▲미 해군 범죄수사국 특수요원들의 활약상을 다룬 ‘NCIS’ ▲유명인들의 뒤처리 전담 해결사의 이야기 ‘레이도노반’ ▲연쇄살인마를 쫓는 연쇄살인마의 이야기 ‘덱스터’ ▲국내 최초로 리메이크된 미드 ‘굿 와이프’ 등이 있다. /김나인 기자